

## 환경에너지산업전 10월 14-17일 BEXCO 개최

2008 국제 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08)이 10월 14-17일 부산 해운대 BEXCO에서 개최된다.

2008년 2회째를 맞은 국제 환경에너지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환경·에너지 통합 전시회로,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에너지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과 에너지 분야 신기술 및 신제품들이 출품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국내를 비롯한 8개국 234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해외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인 GE Energy, 발라드(BALLARD), IQ Air 등을 포함한 7개국 31사가 참가한다.

환경·에너지산업 선진국인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유명기업들로 구성된 대형 국가관 형태로 참여한다.

해외바이어로는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지역 등 20개국 130여사가 방문할 예정이며, 특히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주요 각료, BP Solar 등 에너지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중역들이 부대행사인 KOTRA 투자상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BEXCO는 “2008년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공동주관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환경 신기술 전문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첨단기술 및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에너지분야에서도 발전분야, 가스, 냉난방, 연료절감제품, 재생에너지 제품 및 기술들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8/10/09>